

피핑톰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가족 3부작 작품 「아버지」, 「어머니」, 「아이」를 중심으로 -

왕자목* · 조은숙**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특성	참고문헌
III. 피핑톰 무용단 작품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Abstract

I. 서론

20세기 초 프랑스의 문학에서 새로운 예술사조로 대두되었던 초현실주의는 미술,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주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17년 프랑스의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가 그의 희곡 「티레시아의 유방 *Mamelles de Tiresias*」에서 쉬르레알리즘(Surréalisme)이라는 용어를 창안해낸 후,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필리프 수포(Philippe Soupault) 등의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초현실주의는 독일, 미국 등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브르통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 세계와 꿈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1924년 10월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초현실주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브르통이 정의한 초현실주의의 조직적인 예술운동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발전되다가 1966년 브르통의 죽음 이후 쇠퇴되었지만 초현실주의의 예술사조와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변모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이성적인 체계와 도덕적 검열을 거부하고 모순과 자유로운 사고,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와 현실의 융합 등의 초현실주의의 핵심은 현재의 예술 작품들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용예술의 경우, 벨기에의 피핑톰 무용단(Peeping Tom Dance Company)은 2000년도에 창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초현실주의적 작품들을 무대에 많이 올리는 무용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평론가 케스터 프레릭스(Kester Freriks)는 “피핑톰 무용단의 초현실주의와 신비한 시각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고 호평하였다.¹⁾

* 주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eschod@hanmail.net

1) Kester Freriks(2014, 10, 2.), *Droombeelden En Nachtmerries In Theater Over Ouderdom*, 『Theaterkrant』, <https://www.theaterkrant.nl/recensie/vader/peeping-tom/, 2021. 3. 5.>.

특히 피핑툼 무용단의 ‘가족 3부작’ 시리즈는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족 3부작’ 시리즈는 2014년에 초연한 「아버지 *Vader*」와 2016년의 초연작 「어머니 *Moeder*」 그리고 2019년에 초연된 「아이 *Kind*」 등 세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작품들은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혼합하여 보여줌으로써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시키는 초현실주의의 특징처럼 세 작품들은 모두 끊임없이 꿈과 같은 환상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브르통이 선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꿈의 연상 형식을 통해 이성과 도덕성의 통제를 상실한 후, 인간의 원시적인 내면에 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무용수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과장되고 격한 동작들로 표현함으로써 실생활의 모습과 다르게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초현실주의적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는 피핑툼 무용단은 벨기에의 무용예술을 대표하는 만큼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피핑툼 무용단의 몽환적이고 파격적인 모습들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가족 3부작’ 시리즈의 초현실주의적 특징에 대한 연구는 피핑툼 무용단의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피핑툼 무용단의 작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말복과 이지원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연구²⁾와 켈리 알렉산더(Kelly Alexander)의 작품 「거실 *Le Salon*」을 통한 극장 무용의 서사적 기능 및 효과 연구³⁾ 등이 있고 초현실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핑툼 무용단의 세 작품, ‘가족 3부작’ 시리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인 특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 3부작’ 시리즈 작품들의 영상자료와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족 3부작’ 시리즈에서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II.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특성

1. 초현실주의 개념

초현실주의의 개념은 1917년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가 그 당시 혁신적인 작품으로 손꼽혔던 장 콕토(Jean Cocteau)의 각본으로 레오니드 마쉴느(Leonide Massine)가 안무한 발레극 「파레이드 *Parade*」와 자신의 희곡 「티레시아스의 유방 *Les Mamelles de Tirésias*」을 설명하기 위해서 쉬르레알리즘(Surréalisme)이라는 명사를 창안함으로써 규정지어졌다. 그런데 이 당시의 초현실주의의 의미와 표현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초현실주의와 다소 다른 맥락을 지녔던 것으로 사료된다. 두 작품에서는 단순히 실생활 중의 장면을 허구 장면으로 바꿈으로써 현실을 초월한 모

2) 김말복, 이지원(2015), 춤추는 주체의 마이너리티 논의-육체와 욕망 그리고 시간의 경계로부터의 탈주,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3(2), pp.15-16.

3) Kelly Alexander(2011), *Dark Park: visceral experiments with narrative in dance theatre*, Victoria University Master's thesis, pp.10-11.

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을 미술사학자인 피오나 브래들리(Fiona Bradley)는 “일종의 리얼리즘을 초월한 예술적 진실⁴⁾”이라고 설명하였고, 사전적 의미에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환상의 세계”로 정의되고 있다.⁵⁾ 그러므로 당시에 아폴리네르는 ‘일종의 초-현실주의(sur-realism)’라는 의미로 두 작품을 ‘초현실적’이라고 일컬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초현실주의 개념이 발전되면서 아폴리네르가 언급했던 ‘초-현실주의’는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작품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장면은 사람의 주관적인 희망이나 정상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곤 했다. 그러나 현재의 초현실주의는 단지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장면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현재의 초현실주의는 당시 아폴리네르가 언급했던 현실을 단순히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초현실주의는 단순히 현실주의를 초월하는 ‘일종의 초-현실’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하는 ‘비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 내는 환상의 세계이다.

〈초현실주의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상해냄으로써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을 해방하려 한다”는 것이다.⁶⁾ 여기서 의미하는 ‘현실 세계’는 이성과 도덕관념에 의해 통제되고 인간의 많은 본능과 욕망이 억압된 세계를 의미한다. 반면에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는 인간의 진실한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비현실적인 세계이다. 즉, 꿈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초현실주의적인 ‘비현실’ 부분의 구성은 당시 아폴리네르가 말한 ‘초현실적’이 아니고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아폴리네르가 제시하였던 초현실주의의 개념에 예술가들은 관심을 가졌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초현실주의의 발달은 지연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예술가들은 기존의 체계와 관습적인 예술에 저항하는 다다이즘에 매료되어 다다이즘이 먼저 발전하게 되었다. 다다 선언, “자유: 다다 다다 다다, 긴장된 색채의 포효, 대립과 일체의 모순이 뒤섞여, 과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⁷⁾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긴장감, 대립, 모순 그리고 과기함을 주장한 다다이즘은 이후에 발달되는 초현실주의 개념의 확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다이즘은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므로, 이것은 이후 브르통이 주장한 초현실주의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자유라는 낱말 하나가 아직도 나를 열광시키는 모든 것이다. ...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남겨졌음을 명심해야 한다”⁸⁾라고 언급하였다.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다이즘과 브르통의 관점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로는 다르고 볼 수 있다. 다다이즘은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와 대립하고 전통적인 관습 등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반면에 초현실주의는 이성, 도덕과 합리주의를 반대하지만 인간의 무의식 세계와 내면을 탐구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재건하고 새로운 이론과 철학 원칙을 창립하는 것이다. 〈다다주의 선언〉을 살펴보면 “다다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⁹⁾ 다다이즘은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써 허무주의를 추구한

4) Fiona Bradley(1997), 『초현실주의』, 김금미(역)(파주: 열화당, 2003), p.6.

5) “초현실주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363&cid=40942&categoryId=32856>, 2021. 3. 5.>.

6) André Breton(1924),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역)(파주: 미메시스, 2012), p.10.

7) Lily Ketling(2017. 3. 9.), *Dada 2.0*, 『EXBERLINER』, <<https://www.exberliner.com/whats-on/stage/fruits-of-labor-miet-warlop/>, 2021. 3. 5.>.

8) André Breton(1924), p.63.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다이즘은 허무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다다이즘의 일원이었던 브르통은 다다이즘과 결별해서 초현실주의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폴리네르가 창안한 ‘초-현실주의’ 용어를 인정했지만 아폴리네르가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1921년 브르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를 만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을 기반으로 하는 초현실주의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을 살펴보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Conscious)과 전의식(Preconscious) 그리고 무의식(Unconscious)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¹⁰⁾ 의식 부분은 인간의 이성적인 면이고 무의식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꿈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르통은 인간의 양면성, 즉 이성과 비이성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시키는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표현방식은 다른 초현실주의자들에게도 꿈과 연관되는 탐구의 지침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보다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르통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이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브르통은 꿈을 욕망의 징후로 보았던 데 반해 프로이트는 소원 성취로 보았다. 브르통은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꿈과 현실의 신비한 관계를 밝힐 것을 신념으로 삼았다. 프로이트는 꿈과 현실의 관계를 왜곡과 치환의 관계로 보았다.¹¹⁾

브르통의 관점에 의하면 초현실주의적인 꿈의 세계는 인간의 욕망이며 현실과 꿈의 결합도 서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간주된다.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와 현실의 융합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인간 잠재의식의 교류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1924년 브르통은 첫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을 작성하였다:

초현실주의. 남성 명사. ... 이성이 행사하는 모든 통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난 사고의 받아쓰기. 철학. 초현실주의는 그 이전까지 무시되었던 어떤 종류의 연상 형식이 지닌 우월한 현실성과 ‘몽상의 전능함’과 사고의 무사 무욕한 작용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둔다.¹²⁾

선언문에서 언급한 ‘연상 형식 및 몽상의 전능함’은 모두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초현실주의 개념의 기초는 꿈 세계의 탐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살펴보면 실재와 상상, 삶과 죽음 등은 모두 모순이고 동시에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¹³⁾ 초현실주의는 다양한 사

9) Matthew Gale(1997),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역)(서울: 한길아트, 2001), p.47.

10) Ji Won Lee(2017), The Psychoanalytical Approach and Expression Shown on The Rite of Spring by Vaslav Nijinsky,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6(4), p.57.

11) Hal Foster(1993),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역)(파주: 아트북스, 2005), p.31.

12) André Breton(1924), pp.89-90.

13) Hal Foster(1993), pp.19-20.

상들이 융합되어 독특한 예술사조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초현실주의의 특유한 아름다움은 바로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개념을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⁴⁾ 다시 말해서 초현실주의는 도덕과 이성의 속박을 타파한 꿈의 세계와 현실의 결합된 형식이며 자유와 모순 및 욕망의 특징을 함유하고 있는 무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초현실주의 특성

초현실주의는 우연성, 환상성, 상징성 그리고 해학성 등 다양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의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여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와 의식을 가리키는 현실 세계를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진실한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써 초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는 현실과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가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예술분야 중에서 회화는 꿈의 세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의 작품, 「기억의 영속성 *The Persistence of Memory*」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상적인 꿈의 세계가 잘 나타난다.¹⁵⁾ 현실적인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는 뒤틀린 형태로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간의 무의식적 상태를 예고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의하면 무의식의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꿈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무의식적 꿈의 서사 방식은 평면적인 미술과 달리 영화나 무용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한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잘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 감독 르이스 부뉴엘(Luis Bunuel)의 영화 「자유와 환상 *The Phantom of Liberty*」 중 식당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정장을 입고 번기에 앉아 정중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은 대립적인 모순을 보여줌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장면은 바로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초현실주의 미술과 영화의 상호텍스트를 연구한 홍명희는 “부뉴엘의 영화를 ‘꿈의 무의식적인 모방’이라고 서술하였다.”¹⁷⁾

무용 분야도 마찬가지다. 최초의 ‘초-현실주의’ 발레작품인 「퍼레이드 *Parade*」는 브르통의 구체적인 정의와 다소 다르지만 무용수들이 입체주의적인 의상을 입고 춤추는 장면을 통해서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초현실주의 회화처럼 표현주의, 다다이즘 및 입체주의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핑툼 무용단의 ‘가족 3부작’도 모두 실생활 속의 아버지, 어머니와 아이들의 평범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장면과 과장된 움직임들로 현실과 비현실적인 세계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회화의 경우,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현실과 꿈의 세계를 융합하는 서사 방식을 잘 활용하였고, 더 나아가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의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¹⁸⁾ 이러한 ‘내면의 현실’을 발견하는

14) 조윤경(2018), 『꿈의 거울』(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47.

15) Dawn Ades(1995), 『살바도르 달리』, 엄미정(역)(서울: 시공사, 2014), pp.98-99.

16) Sigmund Freud(1899), 『꿈의 해석』, 김인순(역)(파주: 열린책들, 2016), p.130.

17) 홍명희(2019), 초현실주의 미술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

것도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의 정의 및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르통은 꿈을 욕망의 징후로 보았고, 이는 무의식 세계가 인간 욕망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 이본느 뒤플레시스(Yvonne Duplessis)는 그녀의 저서에서 같은 관점으로 초현실주의를 설명하였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이 파고 들어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다른 장소를 점차 어둡게 하여 정신의 힘을 전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 인간이 직접적인 이익에 이끌려 인간에게 유용한 사실만을 취급하는 현실 세계와는 상반되는 세계이다. 만일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두 눈을 감으면, 우리는 이미지의 세계, 억압된 추억의 세계에 인도되어 모든 논리와 추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 세계는 무의식적 욕망과 정신의 은밀한 충동의 상징체이다. 이 세계를 밝혀냄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¹⁹⁾

이 인용에서 언급된 ‘이 세계’는 욕망이나 인간 내면의 은밀한 충동이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고, ‘인간이 자신에 대한 전적인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초현실주의가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 세계를 통해 인간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은 피핑툼 무용단의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피핑툼 무용단의 작품들은 기괴하고 과장된 움직임과 무대세트, 조명 등을 결합해서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세 번째 특성은 도덕과 이성을 타파하고 모순과 자유를 표현하는 비합리적인 것이다. 조운경은 초현실주의의 비합리적인 특성이 도발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초현실주의적 아름다움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적인 개념들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서 놀랍고 ‘도발적인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⁰⁾

브르통이 작성한 두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언문의 이념을 계속 인정하고 지지하면서 특히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에 더 심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두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가장 단순한 초현실주의 행위는, 손에 권총을 쥐고 거리로 달려가 가능한 한 빨리 방아쇠를 당겨 무턱대고 발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¹⁾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어디에서나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이미 이성적 세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초현실주의에서 나오는 ‘놀라운 도발적인 폭발력’을 의미한다. 결국 초현실주의는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모순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8) Joachim Nagel(2007), 『어떻게 이해할까?: 초현실주의』, 황종민(역)(서울: 미술문화, 2008), p.22.

19) Yvonne Duplessis(1960), 『초현실주의』, 조한경(역)(서울: 탐구당, 1983), p.45.

20) 조운경(2018), p.47.

21) Fiona Bradley(1997), p.11.

III. 피핑톰 무용단 작품에서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1. 피핑톰 무용단 작품의 초현실주의적 성향

피핑톰 무용단은 2000년도에 가브리엘라 카리조(Gabriela Carrizo)와 프랭크 샤프티에(Franck Chartier)가 주축이 되어 창단되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안무가들과 협작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카리조와 프랭크의 안무철학을 바탕으로 창작되고 있다. 피핑톰 무용단은 「정원 *Le Jardin*」(2002), 「거실 *Le Salon*」(2004), 「지하실 *Le Sous Sol*」(2007),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2009), 「아 루에 *A Louer*」(2001), 그리고 「반덴브란덴가 33번지 *33 Rue Vandenbranden*」(2013) 등의 다양한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초현실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무용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피핑톰 무용단에서 활동한 김설진은 “2004년도와 2006년도에 내한해서 보여준 작품 「정원 *Le Jardin*」과 「거실 *Le Salon*」은 연극과 무용의 융합이 마치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피핑톰 무용단에 오디션을 보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²²⁾ 또한 무용 평론가 김예림은 “무용에서는 주로 1980년대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을 초현실주의로 꼽는다. 하지만 더 확실한 초현실주의 무용은 벨기에 피핑톰 무용단에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³⁾ 피핑톰 무용단은 자신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현실, 비현실, 내면’ 등의 단어들 많이 언급한다.

2013년도에 내한해서 보여준 작품, 「반덴브란덴가 32번지 *32 Rue Vandenbranden*」는 초현실주의적인 꿈의 서사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였다. 문학수 기자는 이 작품을 “자신의 뿌리와 문화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면과 잠재의식을 초현실주의 풍으로 묘사하는 무용이다”라고 평하였다.²⁴⁾ 이와 같이 피핑톰 무용단은 작품마다 현실과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융합함으로써 관객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고 무용수들은 과장되고 파격적인 동작들을 통해서 현실의 이성적 경계를 타파하고자 한다.

특히 피핑톰 무용단의 창립자인 프랭크 샤프티에(Franck Chartier)와 가브리엘라 카리조(Gabriela Carrizo)가 함께 안무한 ‘가족 3부작’ 시리즈는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9년 런던 국제 마임 축제에 참석한 피핑톰 무용단의 공연에 대해서 극장 책임자인 토니 랙킨(Toni Rackin)은 “수상 경력에 있는 벨기에의 무용단인 피핑톰(Peeping Tom)이 초현실주의적인 ‘가족 3부작’ 중 (작년에 보여 주었던 작품 「어머니 *Moeder*」에 이어) 작품 「아버지 *Vader*」로 우리 무대에 복귀하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다”고 극찬하였다.²⁵⁾

피핑톰 무용단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동작들을 살펴보면 괴기스러운 고난이도의 움직임들이 많다. 예를 들면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발 옆에 붙임으로써 과하게 구부리는, 마치 곡예에 가까운 동작을 수

22) 유주현(2013. 10. 26.), “난해한 현대무용? 쉽게 얘기하는 게 고도의 테크닉”,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2968033>, 2021. 3. 5.>.

23) 김예림(2018. 12. 5.), “우리 춤이 초현실과 만나면 : 국립무용단 더 룸”, 『국립극장』,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38744&memberNo=5360415&vType=VERTICAL>, 2021. 3. 5.>.

24) 문학수(2013. 10. 16.), “세계 현대무용 주도 벨기에 ‘피핑톰’ 온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04585&code=960313, 2021. 3. 5.>.

25) *Peeping Tom: Child(Kind)*, 『Barbican Centre』, <<https://www.barbican.org.uk/digital-programmes/peeping-tom-child-kind>, 2021. 3. 5.>.

행한다. 이와 같은 동작들은 모두 피핑톰 무용단이 연마하고 있는 ‘끔찍한 신체 운동(Horrible Body Movement)’에서 기인한다.²⁶⁾ 피핑톰 무용단은 자신들이 칭하는 ‘끔찍한 신체 운동’이 삶의 이상하고 낮은 작은 상황까지도 포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례로 장애인의 신체적 움직임 상태를 관찰하고 발전시켜서 정상적인 춤 동작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고, 상상을 통해 괴기한 움직임과 비현실적인 무대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 결국 이것은 괴기한 무용 동작들과 현실적인 무대배경을 결합해서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 내용 자체가 현실과 비현실적인 장면을 융합하거나 인물의 진실한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기도 하고, 도덕적 관념을 벗어나서 모순되고 자유로운 표현들을 보여줌으로써 초현실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족 3부작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가. 「아버지 *Vader*」(2014)

프랭크 샤르티에가 안무한 작품 「아버지 *Vader*」는 치매에 걸려 양로원에 머물게 된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 및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 샤르티에는 초현실주의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형식적으로 재방문을 약속하면서 양로원에 아버지를 맡겨 버리는 아들과 무심하게 수프를 먹고 있는 양로원의 노인들의 모습 등을 통해서 아들의 무정함과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 등 모두 정상적인 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장면은 바로 초현실주의 선언 중에서 언급된 ‘도덕적인 모든 배려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현실과 비현실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흰색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 네 명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둘러싸고 실새 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점프를 하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이들의 얼굴을 인지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장면은 마치 꿈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구분하기 어려운 모호한 순간을 연상하게 한다. 더우기 어두운 조명과 느린 템포의 배경음악에서 나오는 바람 부는 듯한 소리는 몽환적인 모습을 더해주고,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동시에 관객들에게도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샤르티에는 아버지의 역할과 양로원의 노인들을 위해 실제 노인들을 출연시켰고 이는 더욱 작품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었다. 양로원의 노인들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광경이지만 모호한 꿈의 세계와 같은 무대에서 아버지를 무시한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춤추는 여성들의 장면은 대비되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이런 현실과 비현실적인 장면을 함께 보여주는 무대는 이본느 뒤플레시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초현실주의의 실증적 경향, 즉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과 통일시키려는 초현실주의의 노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내용을 잘 증명해주는 것으로 사료된다.²⁷⁾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핑톰 무용단은 ‘끔찍한 신체 운동’ 훈련으로 생활

26) Ntch togo(2019. 7. 22.), *Horrible Body Movement XPeeping Tom*, Peeping Tom Dance Company, Tai Wan: Ntch togo(VHS, 4 Minutes 27 Sesonds), <<https://www.youtube.com/watch?v=yJ-TLDbRSxM>, 2021. 3. 5.>.

27) Yvonne Duplessis(1960), p123.



〈그림 1〉 「아버지 Vader」 중 1장²⁸⁾

속에서의 세세한 모습들을 잘 포착하고 극대화해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함께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은 대표적인 장면으로 무대조명을 좌우에 약하게 비추어 무대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스탠드 조명 하나로 강조하고 있고, 왼쪽은 자녀인 여성 무용수가 춤을 추는 모습을 흐린 조명으로 비추게 함으로써 꿈속

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부분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증폭시키고 동시에 여성 무용수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작을 살펴보면, 여성 무용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뒤틀며, 괴기한 신체 동작으로 광기에 가까운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녀는 삶에 지쳐있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불효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며 동시에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무대에서 내면적으로 갈등하는 자녀와 피아노를 치며 사랑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대립되는 표현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아버지의 내면과 딸의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어머니 *Moeder*」(2016)

작품 「어머니 *Moeder*」는 가브리엘라 카리조가 안무한 ‘가족 3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을 나열한 작품으로, 카리조는 이 작품을 인간의 무의식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차원에서 창작하였다고 언급하였다.³⁰⁾ 매트 트루먼(Matt Truman)은 “작품 「어머니 *Moeder*」는 초현실주의적인 그림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평하였다.³¹⁾ 예를 들어 관에 누워 있던 사람들이 비닐봉지로 몸을 싼 후 뛰쳐나와 관리자와 얘기하는 장면은 모두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나 있고, 무대 세트와 조명 등과 어우러져서 꿈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 2〉 「어머니 *Moeder*」 중 1장²⁹⁾

이 작품도 비현실적인 것과 보편적인 현실을 융합하여 초현실주의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산부인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임산부 그리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 등의 출연은 일반적인 산부인과의 분만실 모

28) 舞姿(2021. 2. 3.), “刘怡君”, Peeping Tom Dance Company, China: Xiao Hong Shu(VHS, 2 Minutes 28 Seconds), <<https://www.xiaohongshu.com/discovery/item/601a82eb000000001007e34>, 2021. 3. 5.>.

29) MandragoraBCN(2017. 3. 2.), *Moeder, de Peeping Tom, en el programa Atención Obras*, Peeping Tom Dance Company(VHS, 4 Minutes 21 Seconds), <<https://www.youtube.com/watch?v=3RWOKVAPSIY&t=99s>, 2021. 3. 5.>.

30) Gabriela Carrizo(2016), *Moeder*, 『Peeping Tom』, <<https://www.peepingtom.be/en/production/moeder>, 2021. 3. 5.>.

31) Matt Trueman (2018. 1. 9), ‘Bodies can go further than you think’: Peeping Tom’s bamboozling shows about parenthoo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8/jan/09/peeping-tom-barbican-london-mime-festival-mother-father>, 2021. 3. 5.>.

습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해냄으로써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또한 무대 전체를 어둡게 하고 수술실에 파란 조명과 빨간 경고등을 켜놓음으로써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세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임신부의 통증으로 인한 비명과 분만실의 외관은 끊임없이 관객들에게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평론가 미아 베르만(Mia Vaerman)은 이 작품에 대해서 “가브리엘라 카리조의 대본은 어머니를 의식과 무의식적 기억의 융합과 충들의 몸으로 묘사한다”고 평하였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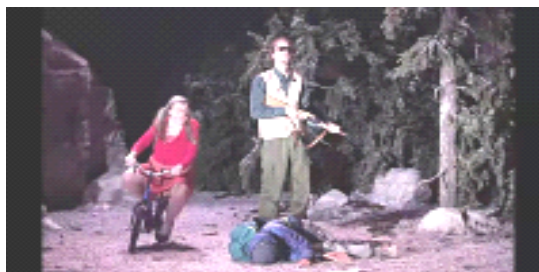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 부분은 인간의 이성적인 면이고 무의식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꿈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과 비이성의 결합은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와 비현실적 세계를 융합하여 초현실주의적인 세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오나 브래들리는 자신의 저서 <초현실주의>에서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을 통해 의식을 고의로 교란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것들과의 소통을 추구했다”고 서술하였다.³³⁾ <그림 2>를 살펴보면 카리조는 실생활 중 임신부가 출산하는 과정을 괴기한 행위와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피오나 브래들리가 언급한 것처럼 비현실적 표현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만실에서 신중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의사와 다른 등장인물들이 파격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줌으로써 의식적인 부분을 일부러 교란시켜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분만을 상상하게 한다.

다. 「아이 Kind (2019)

‘가족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아이 Kind」는 가브리엘라 카리조와 프랭크 샤프티에가 함께 안무하였다. 무대에서는 선과 악의 제약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었고 여자아이의 무의식 세계와 아동의 시각에서 인간 정신세계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피핑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작품은 폭력, 진실과 거짓 사이의 갈등, 타인, 트라우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⁴⁾

이 작품 또한 비도덕적이고 모순이 가득한 비이성적인 특성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림 3>에서



<그림 3> 「아이 Kind」 중 1장³⁵⁾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인 여자아이가 등산객을 총으로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총을 넘겨주고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등산객의 시신을 둘러보면서 다닌다. 그런데 숨진 등산객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는데 이 책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관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총에 맞아 죽은 등산객의 주변에는

32) Mia Vaerman(2019. 8. 21.), *The Voyeuristic Universe of Peeping Tom*, 『the low countries』, <<https://www.the-low-countries.com/article/the-voyeuristic-universe-of-peeping-tom>, 2021. 3. 5.>.

33) Fiona Bradley(1997), p.9.

34) Kind(2019), 『Peeping Tom』, <<https://www.peepingtom.be/en/production/kind>, 2021. 3. 5.>.

35) Peeping Tom Dance Cie(2019, 5. 28), *Peeping Tom - Kind*, Peeping Tom Dance Company(VHS, 1 Minutes 17 Seconds), <<https://www.youtube.com/watch?v=5UMJOZ9XDzw>, 2021. 3. 5.>.

핏자국이 없고, 반대로 여자아이의 스웨터는 유난히 새빨갳다. 어두운 배경에서 여자아이의 빨간 스웨터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등산객의 보이지 않는 피와 대비되는 것 같다. 분홍색의 무대조명과 영혼이 우는 듯한 배경음악, 죽은 사람 앞에서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도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인다. 살인과 같은 폭력 행위는 이미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벗어난 것이고, 여자아이가 어른 앞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옆에 있던 어른은 말리지 않고 마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은 더욱 현실적인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보편적으로 아이는 생명과 미래를 상징하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여자아이는 등산객을 살해함으로써 보편적인 아이의 모습을 저버리고 삶과 죽음의 모순을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이러한 대립적인 모순은 초기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에서도 표현되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이 당면했던 삶과 죽음의 대립은 초현실주의의 발전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대립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브르통이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언급한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시리즈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세 작품 모두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도덕에서 벗어난 비이성적인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고, 인간의 진실한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연령대나 성별이 다르지만 각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과장된 움직임들은 대비시켜서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점들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작품들 모두 무대세트, 강렬한 색의 의상, 조명 등에도 의미를 함축시키고 극대화시켜 모순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초현실주의의 성격이 잘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피핑툼 무용단의 작품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 특성을 분석해보기 위해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고, 가족 시리즈 작품들, 「아버지 *Vader*」, 「어머니 *Moeder*」, 「아이 *Kind*」 등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특성들을 연구해보았다. 초현실주의라는 용어는 1917년에 기욤 아폴리네르에 의해 창안되었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의 영향을 받은 앙드레 브르통이 1924년에 첫 번째 〈초현실주의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지금의 초현실주의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제2선언〉 및 〈초현실주의 제3선언〉도 발표했지만 핵심적인 개념과 특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설을 기반으로 하는 초현실주의란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여 도덕과 이성에서 벗어난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와 의식을 가리키는 현실 세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진실한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현실과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를 결합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과 비현실적인 장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진실이나 욕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과 이성을 벗어나서 모순이나 자유가 가득한 비합리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품 「아버지 *Vader*」는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와 양로원의 노인들의 진실한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이 융합된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성

무용수가 보여준 과기하고 과장된 동작들은 자녀들의 내면과 욕망을 외향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작품에서 노인의 추억들을 보여줌으로서 현실을 꿈의 세계로 나타내는 부분은 아버지의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꿈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어머니 *Moeder*」도 어머니의 추억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하는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상징은 마치 창고처럼 의식과 무의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현실과 비현실적인 장면들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임신부가 출산하는 과정을 황당하고 조화가 안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실생활 속의 출산장면을 비교 연상시킴으로서 현실과 비현실을 결합하는 초현실주의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작품 「아이 *Kind*」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무의식 세계와 성장과정을 보여주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능을 드러내고 모순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도덕과 이성적인 것을 벗어나 모순과 자유를 표현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욕망을 현실과 비현실의 결합인 초현실주의적 표현으로 나타낸 ‘가족 3부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추후 피핑톰 무용단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안무 특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와 함께 초현실주의적 작품을 창작하는 다른 안무가들의 특성들을 비교분석 해봄으로써 무용예술 속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조윤경(2018). 『꿈의 거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Ades, Dawn(1995). 『살바도르 달리』. 엄미정(역). 서울: 시공사. 2014.
- Breton, André(1924).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역). 파주: 미메시스. 2012.
- Bradley, Fiona(1997). 『초현실주의』. 김금미(역). 파주: 열화당. 2003.
- Duplessis, Yvonne(1960). 『초현실주의』. 조한경(역). 서울: 탐구당. 1983.
- Foster, Hal(1993).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팀(역). 파주: 아트북스. 2005.
- Freud, Sigmund(1899). 『꿈의 해석』. 김인순(역). 파주: 열린책들. 2016.
- Gale, Matthew(1997). 『다다와 초현실주의』. 오진경(역). 서울: 한길아트. 2001.
- Nagel, Joachim(2007). 『어떻게 이해할까?: 초현실주의』. 황종민(역). 서울: 미술문화. 2008.
- 김말복, 이지원(2015). 춤추는 주체의 마이너리티 논의-육체와 욕망 그리고 시간의 경계로부터의 탈주.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3(2): 1-20.
- Lee, Ji Won(2017). The Psychoanalytical Approach and Expression Shown on The Rite of Spring by Vaslav Nijinsky.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6(4): 53-71.
- 홍명희(2019). 초현실주의 미술과 영화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예림(2018. 12. 5.). “우리 춤이 초현실과 만나면 : 국립무용단 더 룸”. 『국립극장』.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38744&memberNo=5360415&vType=VERTICAL>, 2021. 3. 5.>.
- 유주현(2013. 10. 26.). “난해한 현대무용? 쉽게 얘기하는 게 고도의 테크닉”.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2968033>, 2021. 3. 5.>.
- 문학수(2013. 10. 16.). “세계 현대무용 주도 벨기에 ‘피핑톰’ 온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62204585&code=960313, 2021. 3. 5.>.
- “초현실주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6363&cid=40942&categoryId=32856>, 2021. 3. 5.>.
- Alexander, Kelly (2011). *Dark Park: Visceral Experiments with Narrative in Dance Theatre*. Victoria University Master’s thesis.
- Carrizo Gabriela(2016). *Moeder*. 『Peeping Tom』. <<https://www.peepingtom.be/en/production/moeder>, 2021. 3. 5.>.
- Freriks, Kester(2014. 10. 2.). *Droombeelden En Nachtmerries In Theater Over Ouderdom*. 『Theaterkrant』. <<https://www.theaterkrant.nl/recensie/vader/peeping-tom/>, 2021. 3. 5.>.
- Ketling Lily(2017. 3. 9.). *Dada 2.0*. 『EXBERLINER』. <<https://www.exberliner.com/whats-on/stage/fruits-of-labor-miet-warlop/>, 2021. 3. 5.>.
- Kind(2019). 『Peeping Tom』. <<https://www.peepingtom.be/en/production/kind>, 2021. 3. 5.>.
- Peeping Tom: Child(Kind)*. 『Barbican Centre』. <<https://www.barbican.org.uk/digital-programmes/>

- peeping-tom-child-kind, 2021. 3. 5.>.
- Trueman Matt(2018. 1. 9.). *'Bodies can go further than you think': Peeping Tom's bamboozling shows about parenthoo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tage/2018/jan/09/peeping-tom-barbican-london-mime-festival-mother-father>, 2021. 3. 5.>.
- Vaerman Mia(2019. 8. 21.). *The Voyeuristic Universe of Peeping Tom.* 『the low countries』, <<https://www.the-low-countries.com/article/the-voyeuristic-universe-of-peeping-tom>, 2021. 3. 5.>.
- MandragoraBCN(2017. 3. 2.). *Moeder, de Peeping Tom, en el programa Atención Obras.* Peeping Tom Dance Company(VHS, 4 Minutes 21 Seconds). <<https://www.youtube.com/watch?v=3RWOKVAPSIY&t=99s>, 2021. 3. 5.>.
- Ntch togo(2019. 7. 22.). *Horrible Body Movement XPeeping Tom.* Peeping Tom Dance Company. Tai Wan: Ntch togo(VHS, 4 Minutes 27 Sesonds). <<https://www.youtube.com/watch?v=yJ-TLDbRSxM>, 2021. 3. 5.>.
- Peeping Tom Dance Cie(2019. 5. 28.). PeepingTom – Kind, Peeping Tom Dance Company(VHS, 1 Minutes 17 Seconds). <<https://www.youtube.com/watch?v=5UMJOZ9XDzw>, 2021. 3. 5.>.
- 舞姿(2021. 2. 3.). “刘怡君”, Peeping Tom Dance Company, China: Xiao Hong Shu(VHS, 2 Minutes 28 Seconds). <<https://www.xiaohongshu.com/discovery/item/601a82eb0000000001007e34>, 2021. 3. 5.>.

논문투고일 2021. 02. 15.
심사일 2021. 03. 06.
심사완료일 2021. 03. 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rrealism in the Works of Peeping Tom Dance Company

– Focusing on 「Vader」, 「Moeder」 and 「Kind」 in the Family Trilogy –

Wang, ZiMo* · Cho, Eunsook**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In order to study the surrealism in the Family Trilogy of the Peeping Tom Dance Company, this research centers on the video materials and literature materials of these three works. The Peeping Tom dance troupe in this study has been conveying a certain message to the audience through a surreal expression. The work 「Vader」 expresses the real human heart and the surrealism of desire through the combination of realistic and non-realistic dream scenes. 「Moeder」 also uses the combination of reality and non-reality to create a dream-like stage atmosphere. In addition, the work 「Kind」 also makes use of irrational violent scenes to show the audience an irrational surrealism stage scene that breaks away from moral constraints. This examination illuminates the Family Trilogy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rrealism, and also reflects the influence of surrealism on the style of dance works and has long-term significance for future dance creation.

Keywords: Surrealism(초현실주의), Peeping Tom Dance Company(피핑톰 무용단), André Breton(앙드레 브르통), Reality and non-reality(현실과 비현실), Unconsciousness(무의식)

